

커미션: <https://www.postype.com/@duke-rabbit/post/15144744>

5번째의 사랑이었다 <- 이거입니다



낙님 커미션



코핀님 커미션

- 사복 입지 않음
-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침

## 이름

판도라 ( Πανδώρα, Pandora)\*

- 이 시기/세계관의 사람들 이름은 보통 그로신 등장인물(최소한 그리스식 이름)

## 성별

여성

## 활동시기

고대~멸망\* (약 1만 2천년 전)

- 파판14 세계관에서는 원래의 유토피아(고대/원형 세계)가 있었으나 세계 멸망의 징조가 보여 이를 막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 -> 세계가 14개로 분할 (그러나 세계 멸망 막기(미루기) 성공)

## 가족 정보

부모님, 반려 사역마 (대충 작고 동글동글한 털동물)\*

- 고대인은 원하는 생명체/물체 등을 '창조'할 수 있었음 (이데아 창조)
- 창조하는 법: 이데아가 담긴 크리스탈을 이용한 마법(특정한 생명체 or 물건: 동식물, 발명품) or 그냥 창조(일상적인 물품: 로브)

## 외관

앞머리 있는 금발

허리즈음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있는 장발

살짝 처진 동그란 눈

보라색 눈동자 - 스타티스(꽃말: 영원한 기억) 님은 색

조금 작은 키

중지 첫마디에 박힌 굳은살

손, 발 작음

따스한 분위기의 미인

##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

낙천적인 성격을 가져 아카데미\* 선후배간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**긍정적인 이야기**를 하여 분위기가

가라앉는 것을 방지하였음.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창조물을 폐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

**창의적인 아이디어**를 제시함. 아카데미 입학 초기 이루어진 자질 시험에서 만들어진 부족한 환경에서 자신의

것을 먼저 챙기는 법이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같은 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노력함. 이른

아침부터 수업이나 당번이 있을 때 **밝고 부지런한**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됨. 어린 창조 생물을 **상냥하게** 돌보며, 어린 시민의 의견을 **경청하며 존중함**.

**호기심과 의욕이 많아**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. **학구열이 동기들 중 높은 편에** 속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의로 남아 다른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임. 높은 학구열과 달리 성취욕은 크지 않아 노력 이하의 성적이 나오더라도 소란을 피우지 않음.

원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꽂힐 경우 금지된 행동 또는 **올바른 시민이 하기엔 충동적이라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**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한 편이나 규칙을 상기시켜주면 스스로 자제하기 위해 노력함.

\* **고대인들이 창조 마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설립한 학술기관: 애나이더 아카데미아**

**드림캐:**휘틀로다이우스

**관계-** 연인

**전체적 분위기-** 판도라가 휘틀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착 붙어있음 (평소)

근데 판도라는 휘틀로 없어도 그럭저럭 잘 이겨내고 사는데 휘틀로는 못할듯

## 호칭

**휘틀로 → 판도라** - 판도라(평소), 부국장(직장), 판-도라(부탁할 거 있을 때)

**판도라 → 휘틀로** - 휘틀로(평소), 국장님(직장), 휘-틀로(부탁할 거 있을 때)

\* 딱히 싸운 적은 없어서 화났을 때 호칭은 생략

\* **창조물관리국**

\* **창조물관리국이란?** 앞서 설명한 '이데아가 담긴 크리스탈' 중 창조물의 크리스탈 제작 허가에 관여하는 기관.

누군가의 개성이 담긴 창조물의 경우 제작자만 창조할 수 있음 -> 제작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다른 사람들도

이용하길 바램 -> 창조물관리국에 등록 후 심사 -> 심사 후 크리스탈 제작 or 보완 요청 or 폐기 결정

## 첫인상과 현인상

**휘틀로 → 판도라**

첫인상

- 선배, 작다, 동그란 정수리

현인상

- 여전히 작고 정수리는 둥글고, 근처에 두면 묘하게 거슬리지만 거리 두면 더 거슬리는 사람

조디아크\* 완성 직전

- 그건 거슬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음!

마지막으로 인사만 하지말고 키스라도 해볼 걸, 뽀뽀라도 해줄 걸, 포옹이라도 해볼 걸, 아니, 손이라도...하는  
후회

\* 조디아크: 앞서 설명한 멸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신 (마음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...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 
기도의 힘으로 세계를 구하려고 함) 애를 만들려고 고대인 인구의 절반이 희생됨.

-> 조디아크의 강대한 힘을 경계한 생존자들이 새로운 신 하이델린 제작 -> 조디아크 vs 하이델린 ->  
세계 14등분 (+ 종말 미뤄짐)

## 판도라 → 휘틀로

첫인상

- 후배, 웃는 게 예뻐

현인상

- 여전히 웃음이 예쁘고 상냥한 사람. 귀찮아하는 거 아니까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연인이니까 이것저것  
같이 하고싶은 게 많음

조디아크 만들기 직전(대충 일주일쯤 전)

- 자기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희생 결정한 거 보면 진짜 나 혼자 좋았던 연애였는가보다!

조디아크 만든 후

-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서 별을 가꿔야지!

## 관계의 발전

아카데미 선후배 -> 친구 -> 쌤? -> 연인? -> 연인

### 1) 첫만남

- 큰 이벤트 없음.

학술원 신입생 입학식/환영식때 스치듯 본 사이.

서로를 인지...? 아무튼 제대로 얘기 나눠본 건 점심시간일듯? 점심 먹는 도중에 어디선가 열나게 토론하고 있길래 끼어들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걸 듣다가 한마디 없으려고 끼어들었다가 같이 열나게 토론함... 점심시간 끝 중 치고 서로 좋은 싸움이었다... 하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다음에 토론하다가 생긴 의문점 가지고 민중 토론관 가자고 번호?같은 거 교환함

하데스: 빨리 가자고

테티스: (재네 저러다 사귀다에 만원 건다)

→ 우리집 아잼 이름 (= 애가 갈라져서 세실됨)

## 2) 친해지게 된 계기

- 진짜 민중 토론관 가기 (주제: 트롤리 딜레마처럼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 구하기같은...)

그 주 주말에 따로 만나기로 약속 잡고 민중 토론관에서 토론함. 근데 둘 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하데스랑 테티스가 반대쪽 의견 준비해와야했음. 토론 끝나고 머리 써서 배고프다고 넷이서 밥 먹고 간식 먹다가 테티스는 당시 아잼이었던 베네스 따라가고 하데스는 테티스 따라가고... 휘틀로는 둘이 썸타는 거 아니까 판도라랑 계속 놀고... 그렇게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돼서 4명 필요한 일 있을 땐 판도라가 머릿수 채우게 됨(ex. 둘이서 타야하는 놀이기구)

평소엔 판도라는 한 학년정도 위라서 듣는 수업이나 학기별 스케줄이 안맞아서 자기 친구들이랑 다니는 편.  
(친구 이름: 뽀라, 시카)

## 3) 재학 기간

- 아마 이때부터 썸타기 시작함

주로 판도라가 공부+연구+토론 준비+기타 교수님 잡심부름 하고 있으면 휘틀로가 쫄래쫄래 따라가서 거들어주거나 일을 부풀릴듯 (휘: 어라~ ㅇㅇ도 좋지만 ㅁㅁ도 좋을 거 같은데~ -> 판: 재밌겠다 그것도 연구해볼래...) 휘틀로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해서 판도라한테 붙어있기 시작한 건 아니고 하데스랑 테티스가 아슬아슬하게 곧 고백할 거 같은데?! 해서 눈치껏^^ 둘만의 시간 가지라고 피해준 거일듯... 판도라는 무료 연구 조수가 생겨서 편하고 좋음 (가끔 휘틀로때문에 연구하고 싶은 거 늘어나면 기쁘긴 한데 또 밤샘할 생각에 쏸쏸 슬퍼짐)

그리고 하데스랑 테티스 사귀기 시작한 후로는 어우~ 닭살~ 하는 핑계로 판도라한테 붙어있을듯... 사실 별로 안오글거리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좋지만 한데 이상하게 판도라랑 있어야 뭔가 안정되는 느낌이라 찾아오는 거같고... 그래서 판도라한테 뭔가 플러팅 비스무리한 걸 시도하려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떨어졌을듯..

그만큼 붙어있었으니 판도라 연구에 대해 판도라 다음으로 잘 아는 게 휘틀로라서 + 언제나 연구실에 착 붙어서 보조해주던 사람이 휘틀로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휘틀로 찾으니 휘틀로 주위에서 플러팅 시도해보려는 사람도 떨어졌을테고... 판도라한테 휘틀로가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디폴트 일상 될듯

#### 4) 졸업 후

- 판도라가 (취업으로) 바빠서 자주 못? 본 시기인듯...

고대의 취뽀가 어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서 대충 지금이랑 비슷하게 한다고 치면... 판도라는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원 비스무리한 기관에 잠깐 들어갔을 것 같음. 근데 연구가 직업이 되니까 예전처럼 하고싶은 것만 할 수도 없고 별로 안땡기는 연구하느라 하고싶은 연구할 짬도 못 내니까 퇴사각이나 재고 있을듯... (근데 끝까지 퇴사 못하고 학위 따게 됨)

연구는 못해도 휘틀로는 가끔 만났다고 생각하고요.. 근데 졸업 전엔 일주일에 네다섯번 만나다가 졸업 후엔 한달에 두 번이 평균이고 서너번 보면 자주 보는 게 될 거 같음. (갠적으로 직장인이 한달에 한번만 봐도 사랑이라고 생각함)

그래서 휘틀로는... 이때부터 자기의 두근두근한 감정 전체를 거슬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할듯... 판도라랑 연관된 일만 아니면 평범하고, (에테르를 보니까) 때로는 좀 더 특별하게? 대단하게? 지내는데 판도라만 연관되면 감정이 주체가 안돼서 간단한 일도 복잡해지니까...

테티스: 졸업 직후 아젬 자리 물려받음 -> 휘틀로/판도라 고민상담 들어줌 (당시 감상: 히히재밌따)

#### 5) 창조물 관리국

- 이제 휘틀로가 선배, 판도라가 후배 + 이때부터 사귄

창조물 관리국에 취직은 휘틀로가 더 먼저 했을 것 같음. 그리고 그보다 살짝 늦게 대학원 졸업하고 창조물 관리국 들어왔을 것 같고... (일단)짱친후배 있으니까 입사한 걸테고... 판도라 신입 시절에 휘틀로한테 에메트셀크 제안 들어왔는데 하데스라는 다른 적합자 있음+에메트셀크 되면 간신히 다시 판도라랑 같은 소속이 됐는데 헤어져야함 << 으로 거절할 거 같음. 판도라는 하데스가 더 어울리니까~ 만 들고 그렇구만. 함.. 판도라가 부국장 찍기 전부터 부국장 된 후까지 서로 하도 붙어있었으니까 (휘: 거슬리는데 거리 두면 더 신경쓰임 / 판: 나 재 좋아하는데) 주위에서 흑시~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어느날 같이 저녁 먹다가 그냥 사귀기로 함.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캐문다가 얘기 들은 테티스는 뒷목 잡았을듯

이 이후: 판도라는 자기 감정이 뭔지 확실하게 아니까 연인다운 무언가를 바라는데,  
휘틀로는 이게 단순한 번거로움, 귀찮음, 거슬림, 성가심이라고 생각해서 슬쩍 피함.  
근데 판도라를 놔주긴 더 싫어서 자기 옆에 붙여둬

테티스: 그게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(휘틀로: 안믿음 + 이게 사랑이라도 그런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 
판도라한테만 더 잘해주면 그건 차별이잖아.)

하데스: 냅두면 죽기 전엔 알아서 알아차리겠지. 앞으로 있을 끝없는 시간을 두고 왜 이리 조급해?\*

\* 고대인은 원한다면 영생 가능 (자신이 '해야할 일을 모두 했다'고 생각되면 그때 '별의 바다(=명계)'로  
돌아간다(=죽음)로 스스로 언제 죽을지 선택 가능)

## 6) 조디아크 소환

- 휘틀로가 자원, 판도라는 3~5일쯤 전에 알게 됨

휘: 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일

판: 와... 저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??? 진짜 나만 좋아했던 거네?????

하루 전에 하데스 + 테티스 + 판도라 + 휘틀로 지인들 구성으로 다같이 모여서 작별인사 하는데 평소같았으면  
먼저 안길 판도라가 그냥 웃으면서 보기만 해서 휘틀로도 좀 신경쓰이긴 할듯...

그리고 10초 전, 휘틀로: 자기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후회

## 7) 이후 판도라

- 14조각으로 갈라짐

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:  
고대



테티스 (아젬)	선배~인데 친구같은 사람. 말도 잘 통하고 잘 웃고 근데 휘틀로랑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 시도조차 슬쩍 피하니까 앞으로의 관계가 좀 걱정되긴 함.	늘 사고치느라 바쁜 애. 근데 재밌어하는 것 같으니까... 뭔가 상담할 때마다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 같은데 선배라서 못하는 거면 지금은 그런 거 상관 없는 동료 시민이니까 얘기해주길 바람.	판도라
하데스	바보같은 녀석이랑 사귀는 바보같은 선배	싸가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헛갈림	판도라

## 현대

세실리아: 시민 <-> 영웅

에메트셀크: 어라 이녀석은? <-> 갈레말 초대 황제?

세실리아	시민	영웅	???
에메트셀크 (솔조갈)	어라 이녀석은?	갈레말 초대 황제	???

## 참고사항

1) 애정행각 진도: 볼썽썽

2) 평소 데이트

㉓ 학생시절: 그냥 만나서 노는 거. 밥 -> 창조생물 돌보기/놀이공원? 어린 시민을 위한 학습 장소 -> 카페

㉔ 대학원 시절: 밥 or 카페 -> 공원 산책(걷다가 어디에 한번 앉으면 판도라가 잠들었음)

㉕ 관리국 시절: 밥 or 카페 -> 판도라가 찾아낸 데이트 장소(주로 아젬 추천) or 민중 토론관 -> 밥

3) 판도라가 부끄러워졌을 때: 귀만 새빨강게 달아오름

4) 학창시절 인기

판도라: 밝음 명랑 활기 다정 미인 <- 인기 짱 많음 근데 웬 보라머리가 붙어있어

휘틀로: 다정 온화 미인 장난기 <- 인기 짱 많음 근데 하데스랑 테티스 아니면 웬 금발 선배랑만 놀아

5) Q. 그럼 사귀면서 n천~n만의 시간동안 볼뽀뽀만 했냐?

A. 둘 다 서로를 향한 욕망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소통(판도라)과 자기 감정 알기(휘틀로)의 부재가 문제